

이웃·직장이 함께...달라진 육아 풍경

아이 돌보기, 온 마을이 나선다

‘다함께 돌봄센터’ 본격 시행 하반기 여수 등 시범운영 주민·은퇴교사 등 참여

■ #1. 맞벌이 주부 A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처지가 됐다. 학교가 낮 12시 30분이면 끝나는 바람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결국 임시방편으로 매달 100만원씩 들어 민간 베이비시터를 고용했지만, 맞벌이로 벌어들이는 비용과 비슷해 전업주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다행히 A씨는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지역주민들과 은퇴교사, 보육교사 등이 또래 아이들을 돌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한줄기 희망의 빛을 보게 됐다.

A씨는 “아이를 ‘다함께 돌봄센터’에 맡긴다면 퇴근 때까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 #2. 초등학교 3학년 아이를 둔 B씨도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기대가 크다. 맞벌이인 B씨는 아이를 마땅히 맡길 곳이 없어 이른바 학원을 돌아다니는 ‘학원 셔틀’에 의지해 왔다.

B씨는 “학원비 등 경제적인 부담은 놔두더라도, 아이가 학원생활에 흥미는 느끼는지,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서 게으름만 하는 것은 아닌지, 밥은 제대로 챙겨 먹는지 매일 불안했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공동으로 아이들의 숙제는 물론 간식 등도 챙겨준다고 하니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온 마을 주민이 나서 아이들을 돌보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대되는 효과들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시행한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곳은 ▲여수(아이나래 행복센터)

▲전북 익산(토요일 및 야간 임시·긴급 돌봄) ▲울산 북구(꿈나무 그루터기) ▲경기 과천(마을돌봄나눔터) ▲충북 청주(언제든 돌봄 나눔터) ▲충북 단양(아이키움 온(溫)마을) ▲충남 보령(틈새돌봄 놀이터) ▲충남 서천(송아리 돌봄센터) ▲경남 창원(또마미 돌봄) ▲경남 함양(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 등이다.

다함께 돌봄시범사업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시설의 유휴공간과 지역 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12세 이하 아동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새로 지정된 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에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여수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3~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여수시 미평동 여성문화회관 별관 교육실에서 실시한다.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출·퇴근시간과 방과 후 시간 등 돌봄 필요한 아동을 돌볼 예정이다. 또 숙제지도 교육을 하고 놀이교실 등을 운영해 아이를 맡길 곳이 절실했던 시민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이 선정된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에서 2000만원 이내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1500만원 이내의 리모델링 비용도 지원받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에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 전국 모든 자치단체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 광산구지부는 지난 27일 광주시 광산구 광산구 송정동에서 발달장애 보호시설인 안녕하우스 준공식 및 후원자 기념품 제작식을 했다.

(광주시적발달장애인지원회 제공)

발달장애인 홀로서기 돕는 ‘안녕하우스’

광주·전남 최초 주거공간 마련

광주·전남 최초로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심을 기르는 주거공간이 마련됐다.

광주시 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 광산구지부는 “지난 27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에 발달장애 보호시설인 발달장애인 공동생활가정(안녕하우스) 준공식을 열었다”고 1일 밝혔다.

안녕하우스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안에서 재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다양한 교육, 체험 등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의 행복을 키워가는 곳이다. 현재 34명의 발달장애인과 사회복지사 11명, 사회복지요원이 5명이 함께하고 있다. 안녕하우스란 이름은 장애를 넘어 존중의 사회가 만들어져 모두가 안녕하길 희망하는 바람을 담은 것이다.

안녕하우스는 2층 495㎡(136평)로 신축됐다. 1층에는 다중장애인주간보호센터와 지적장애인지원센터가 들어섰고, 2층에는 공동생활가정이 꾸러졌으며,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

도 마련됐다.

안녕하우스 신축은 지난해 장애인들의 보호·교육 시설로 임대해오던 복지협회 건물이 매각되면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장애의 특성에 맞는 교육공간의 필요를 느낀 발달장애 1급의 20대 아들을 둔 부모 4명은 자녀가 주체성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된 주거공간을 만들기 위해 합의한 뒤 건물의 신축비용으로 5000만원씩 2억원을 마련했다.

시민들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금으로 2억3000여만원을 지원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부모들의 뜻과 동참한 법무사·건축설계사·유리업체·벽장업체 등에서 재능 기부를 하는 등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백순영 광주시 지적발달장애인지원회 광산구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안녕하우스 마련에 힘써 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안녕하우스가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이웃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

자녀 데리고 맘 편히 출근하세요

서울 광진구 ‘동반근무 시스템’ 업무 공간에 불필요장도 갖춰

서울 광진구가 자녀를 데리고 출근해 일할 수 있는 ‘자녀동반 근무시스템’을 도입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가운데 첫 사례다. 광진구는 “지난달 24일 구청 별관 3층

에 직원들이 일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사무실을 만들었다”고 1일 밝혔다.

‘자녀동반 사무실’에는 아이를 위한 동화책, 장난감과 볼펜장 등이 갖춰져 있다. 직원을 위한 업무용 컴퓨터와 전화기도 들여놨다. 냉방고, 식탁 등이 있어 자녀의 간식도 챙겨줄 수 있다. 미취학 아동을 둔 직원도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녀동반 사무실을 이

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 시간 전후나 방학 때 자녀를 맡길 곳이 없다면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이용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 “맞벌이 부부가 대세인 요즘,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문화를 만들면 이 문화가 사기업까지 확대돼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이라며 자녀동반 근무시스템을 도입한 배경을 밝혔다.

광진구는 자녀동반 사무실을 활성화 하기 위해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8살 딸과 4살 아들을 둔 유진숙 광진구 자치행정과 주무관은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녀동반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직원들은 보육교사와 안전요원 배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취학 자녀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김 구청장은 “상사·동료의 이해 속에서 직원들이 아이가 노는 모습을 보면서 편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주민들 “동네 평생학습 카페서 열공 중”

광주 북구 16곳 지정·운영

광주시 북구는 “주민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강의를 듣거나 모임을 할 수 있는 ‘우리 동네 평생학습 카페’ 16개소를 지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우리 동네 평생학습 카페’는 주민들에게 친근한 카페, 음식점 및 공방 등 동네 시설을 동아리 활동이나 모임, 학습 등의 장소로 활용하는 지역 평생학습 커뮤니티 공간으로 신개념 마을 사랑방이다.

지난 5월 운영자 모집을 통해 카페, 사진관, 공방, 안경점, 병원, 학원 등 다양한 동네시설 16개소를 선정, 학습공간 인증

현판을 전달하고 본격적인 공간 활용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학습공간에서는 소규모 학습 활동이나 동아리 모임, 재능기부 강좌, 토론회, 아이디어 회의 등을 시설 주인장이 개방한 시간 내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시설 주인장들이 갖고 있는 전문분야 지식과 기술에 대해 주민들이 함께 배워볼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운영, 평생학습 네트워크 모임 등 다양한 학습공간 활용에 나서고 있다.

문의 062-410-617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시 북구는 최근 ‘우리 동네 평생학습 카페’에 참여한 레몬트리 안경점에서 현판식을 했다. (광주시 북구 제공)

광주 동구 ‘다문화가족 산사체험’ 운영

광주시 동구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산사체험과 요리교실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동구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을 확인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다문화가족 산사체험을 운영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무등산 증심사에서 진행되는 이번 템플스테이는 증심사 답사, 타종체험, 자연과 함께 보물찾기, 놀이체험 등의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둔 초·중

생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4인)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오는 1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동구는 또 한국음식이 낯선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밭고을자연사찰음식체험관에서 요리교실을 운영한다.

요리교실은 9월 6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다양한 가정요리 등을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동구에 주소를 둔 결혼 5년 이내 이주여성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여성은 오는 31일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용희기자 kimyh@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남구 주월동 대로변점 병원최적합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7층건물 대지 994㎡ 건물 2,028㎡ 매매 45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건물]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아파트밀집지역 메인상권 4층건물 대지 780㎡ 건물 1,830㎡ 매매 48억 (보5억3천 월2천2백 포함)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3백)

사우나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6층 건물 대지 496.20㎡ 건물 2360.35㎡ 매매 35억 (보3억5천 월2천포함)
-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곡동 스포츠타운 사우나 위치좋은 건물 5,349.88㎡ 매매 85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6층 지하1~상5층 건물 위치최상 병원기능 대지 334.40㎡ 건물 990.88㎡ 매매 10억 (보1억 6백 월4백3십포함)
- ★ [건물] 광주 동구 계림동 사우나 위치좋은 지하1~4층 대지 949.00㎡ 건물 827.74㎡ 매매 30억 (상당후결정)
- ★ [건물] 북구 두암동 지하1~상4층 건물 대지 442.90㎡ 건물 1237.44㎡ 매매 11억 5천 (보1천5백 월1백2십만포함)
- ★ [건물] 동구 동명동 사우나 5층건물 위치좋은 대로변점 현성업종 대지 452㎡ 1,464㎡ 매매 17억 (용5억포함)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점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점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점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함
- ★ [토지] 북구 삼각동 1중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 ★ [토지] 나주시 남평읍 관촌리 자연녹지지역 123,868㎡ 매매 평당5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